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

(사무엘상 5:1~12)

1.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3.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5.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6.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

요즘 세간에 이야깃거리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 세계 바둑계 서열 4위인 우리나라 이 세돌 기사와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의 다섯 차례에 걸친 대국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4:1로 이 세돌 기사가 졌는데 이 사실을 놓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바둑은 각고의 노력으로 정교한 판단이 필요한 활동입니다. 이 세돌 씨는 탁월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둑계에서는 33살이면 환갑이 넘은 상황인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명이 깁니다. 다섯 번을 대국하며 한 번 밖에 이기지 못했다는 점이 두려움을 생기게 하는데, 이 대국을 놓고서 드디어 ‘신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말까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러다이트(Luddite) 운동’은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방적기계가 하나 생기면 기존의 방적공장의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 계층은 엄청난 경제적 난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네드 러드(Ned Ludd)’라는 가상의 지도자의 이름을 걸

고 기계파괴운동을 벌입니다. 자신들의 일자리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하는 기계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운동 때문에 영국에서는 1813년에 의회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14명의 노동자들이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에 대한 두려움은 영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1818년에는 독일의 쾰른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는 “증기기관 하나가 때로는 1천 명의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고, 모든 노동자에게 나누어질 이익을 한 사람의 수중에 넘긴다. 기계가 새롭게 개선 될 때마다 숱한 가정의 빵이 강탈된다. 증기기관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거지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머지않아 모든 돈이 수천 가문의 수중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걸하는 사태를 예상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게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의 대상이 산업혁명 때에는 방적기계나 증기기관이었다면, 신 러다이트 운동은 컴퓨터나 인터넷 등에 의해서 발달되는 신기술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운동의 대표주자는 미국의 버클리 대학 수학과 교수로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시오도어 존 카진스키(Theodore Joan Kaczynski)입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는 중에 17년 동안 현대의 인터넷 신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가나 과학자들에게 폭탄 편지를 보내서 3명을 죽이고 29명에게 부상을 입히는데 이것이 바로 신 러다이트 운동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알파고가 이 세돌 씨를 이겼는데 이것은 바둑계에서만 있을 일은 아닙니다. 이세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천재성과 거기에 더해진 인간의 수고와 노력,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인격적으로 겪었던 여정들은 대단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둑 자체로만 보자면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 세돌 기사의 모든 생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다이트 운동이 단순한 테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에 대한 저항이고 거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러다이트 운동의 시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은 인간에게서 에덴동산을 박탈하신 것입니다. 산업혁명 때에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해서 직장을 잃게 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시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서 내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능을 인간이 대체해버린 것이지요. 인공지능에 무서워 떨기 전에 내가 누구의 지능을 대체했는가를 생각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판단하심의 기능을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능력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상황까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민족신 지방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로서는 블레

셋의 승리는 곧 블레셋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전리품인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다시 세운 다음날에는 다곤 신의 머리가 날아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날에는 다곤 신전이 있던 아스돗 도시 전체를 독한 종기로 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였으면 법궤가 빼앗기기 전에 전쟁터에서 하시면 되었지 법궤를 빼앗긴 다곤 신전에서 역사를 하시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블레셋에 임하고 있지만 선민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시기 위해 일부러 블레셋에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다곤 신전에 두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선민들의 영적인 상태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법궤가 들어온 상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선민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치 경찰의 존재는 모범 시민에게는 축복이지만 죄인들에게는 재앙인 것과 같습니다. 내가 특정한 상태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상태를 선민들이 모르고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블레셋에 법궤를 빼앗기도록 하셨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안치된 상태에서 이러한 역사를 초래하신 것입니다.

원래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실로에 있는 중앙 성소였는데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전에는 법궤만을 달랑 가져다 놓은 상태입니다. 이 두 상태를 비교함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 법궤만 달랑 있는 상태와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왜 하나님의 파괴 역사(러다이트 운동)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으로 우리 삶에서 평강과 감사가 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 우울 불평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안에 법궤가 있었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고,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었고 등대와 떡 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다곤 신전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된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태이고, 다곤 신전에 법궤가 들어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물이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인데 이 빈 곳을 채우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가장 깊은 곳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움직임의 시작이 됩니다. 향단은 기도를 뜻하는데 기도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법궤를 들여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향단이 기도를 뜻하는 것처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떡 상이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등대가 가리키는 바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법궤 상자 뚜껑이 속죄소인데 죄가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법궤 대신에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마음의 지성소에서 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뜻하는 것은 물로 씻듯이 이러한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증거가 들어와 계셔야 하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더러운 것임을 깨닫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려는 기질의 나를 죽이기 위해 번제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물두멍, 번제단, 등대, 떡 상, 향단 등의 모든 것들은 법궤와 유기적인 의미상 연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나의 기질을 죽이기 위해서 성소의 장치들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다곤 신전에는 법궤만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지배하는 신이었고 다곤 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가져다 둔 것이 곧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로, 마음 안에 다곤 신이 들어있는 것은 요즘으로 치자면 돈과 성공과 형통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만을 가져다 놓은 것은 물두멍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를 하나님에서 돈으로 대체한 채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물인 법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붙잡고 설교를 하지만 지성소는 하나님 대신에 교회 부흥으로 대체되어 있는데 지금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거물을 붙잡지만 마음의 지성소에는 다곤 신인 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것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오히려 평강이 깨져야 하고 일과 사업이 깨지고 자녀 사랑도 깨지고 건강도 깨져야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으로의 이행을 위해서 지금의 상태가 깨지는 러다이트 운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곤 신을 깨뜨리시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게 하셨지만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괴로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선민 자신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이러한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법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찾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법궤를 통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실 법궤를 일부러 빼앗기게 하신 것인데, 법궤를 붙잡은 선민의 마음 상태를 엑스레이를 찍듯이 드러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전쟁터에서 이기겠다.’고 법궤를 가져온 것은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가져다 둔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셔서 다곤 신상의 목을 자르듯이 선민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피난을 나오신 것입니다. 같이 있다 보면 선민을 다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초래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피난을 나오신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빼앗기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다곤 신전에 법궤를 둔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내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을 두는 장소인데, 이곳에 계셔야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아무리 법궤를 가져다 놓아도 다곤 신전에 법궤를 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경계를 긋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 시절에는 아직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다곤 신을 품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왔다가는 다 죽임을 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훌륭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제는 내가 러다이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는 십자가에서 씻겼지만 기질적으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자식 건강 사업 성공 형통 부흥을 붙잡는데, 이러한 나의 기질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러다이트 운동을 감행하는 것인데 이 파괴 운동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치하려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소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마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한 러다이트 운동이 지속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과 기쁨과 평강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러다이트 운동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에 대한 러다이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십자가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을 대치하려는 습성이 드러나는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로 파괴함으로서 러다이트 운

동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